



서울신문
2014.02.18
국제갤러리(주)

미술가 줄리언 오피 작품전

비닐로 만든 色의 향연

상술인가 예술인가



“나는 배우가 아닙니다. 작품만 봐주세요.”
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 같던 작가는 갑자기 실
이부터 벌었다. 수십 명의 취재진을 따돌리고 한사
사진 찍기를 거부하다니 한참 뒤에야 겨우 카메라
글 앞에 섰다. 제한된 시간은 1분. 그동안 작가는 부
자세만 취했다. 하지만 얼굴에선 짜증이 아닌 중만
자신감이 읽혔다. 과감한 생략을 통해 익명의 인물
이 만들어 내는 너무나 무심한 풍경을 담은 회화는
런 작가가 지향하는 예술 세계다.

한국에서의 두 번째 개인전을 위해 최근 서울 종로
소격동의 국제갤러리를 찾은 영국 런던 출신 작가
리언 오피(사진·56)의 이야기다. 서울역 앞 서울
퀘어에 걸린 대형미디어 작품 ‘군중’으로 한국에서
친숙한 작가다. 하지만 그를 둘러싼 화단의 평가는
갈린다. “앤디 워홀 이후 최고의 팝아티스트”란 극
과 함께 (회화에) 비닐조각을 갖다 붙이는 상업작
란 혹평이 그것이다.

“내겐 색감이 가장 중요합니다. 비평가들은 흔히
제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색감이야말로 주제를 표
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. 곡이 가사에 앞서 노래를
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”

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거리의 인물들은 역동적이
. 자신만의 방식으로 차려입은 사람들은 낯선 이들
뒤섞여 끊임없이 아름다움과 에너지를 발산한다.
리그래피처럼 단조롭고 평면적인 이미지에 불과하
만 검고 굵은 윤곽을 따라 흐드러지듯 피어난 선명
· 색채는 작가가 인물의 움직임을 표현하기에 안성
춤이다. 원색 동화를 연상시키는 색감은 흡사 1900
대 초 앙드레 드랭이나 앙리 마티스의 색감을 떠올
게 한다.

새달 23일까지 국제갤러리 전시회 신사동·사당동 등 풍경 회화로 표현

“내게 영감을 허락한 것은 일본 ‘망가’의 원조인 에
도시대 목판화(우키요에)나 기원전 100년 안팎에 제
작된 ‘밀로의 비너스’ 같은 대리석 조각입니다. 현대
거리와 사람들, 가게 간판과 상업 광고 등도 빼놓을
수 없지요.”

작가는 온전히 관객의 호기심을 끌기 위해 1987년
이후 유색 비닐을 재단해 물감 대신 표현해 왔다. 요
즘에는 사진을 찍은 사람의 두상을 3D프린터로 구현
한 대형 레진 조각이나 발광다이오드(LED) 패널로
움직임을 표현하는 작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.

“내 그림은 드로잉이 단순한 대신 거기에 움직임을
주입합니다. 초상화가 더 복잡해 보일진 모르지만, 여
러 겹의 층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선 같죠. 게다가 붓으
로 그려야 화가이고, 컴퓨터로 재단하면 디자인이란
생각은 자동차가 미술관에 처음 전시됐을 때 사람들
이 충격받던 시절 이야기죠. 무슨 도구를 쓰든 어떻게
표현하든 그건 나의 뇌가 세상을 입체적으로 바라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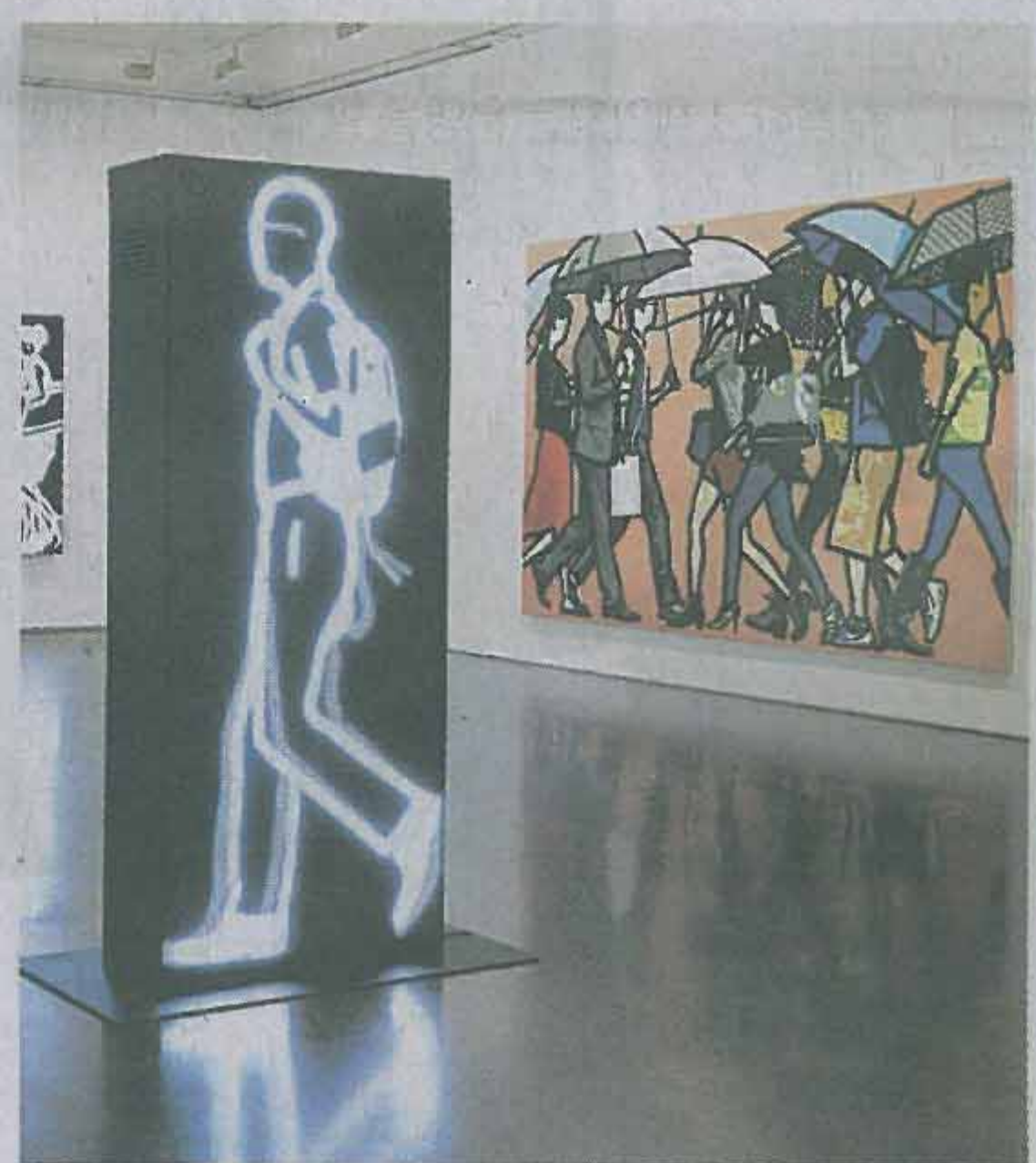
는 방식일 따름입니다. 피카소나 리히텐슈타인과 마
찬가지로요.”

이런 작가는 유난히 한국에 관심이 많다. 2009년
첫 개인전 외에도 서너 차례 한국을 더 찾아 여러 거
리를 둘러봤다. “서울 강남의 신사동에 갔을 때 무척
놀랐죠. 사람들이 옷을 매우 잘 입는 데다 장신구, 머
리 모양, 모자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이 이채로웠어요.”

작가는 이런 경험을 살려 신사동, 사당동을 회화로
남겼다. 한국 사진가에게 3000여장의 사진을 찍도록
해 이 가운데 몇 장을 추려 4~5개월간 작업했다. “요
즘엔 거리에서 익명의 모델을 찾기도 힘들습니다. 사람
들이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며 걷기에 개성이 없죠.”

지금도 작가는 런던 북동쪽 쇼디치 인근의 3층
스튜디오에서 6~7명의 조수와 함께 작업한다. 직
접 스튜디오에서 만들지 않고 세계 각지의 기술자
들이 제작한 것을 마무리 짓는 작품도 있다. 게다가
작품을 맞바꾸는 것으로 유명한 괴짜다. “리히텐슈
타인, 데이미언 허스트, 칼 안드레 같은 작가들의 작
품을 소장자들과 교환한 적이 있어요. 이 밖에 이우
환이나 무라카미 다카시의 작업을 좋아합니다.” 전
시는 다음 달 23일까지 이어진다.

오상도 기자 sdoh@seoul.co.kr



국제갤러리 제공
세계적 팝아티스트인 줄리언 오피가 서울 신사동의 행인들
을 모델로 색비닐을 오려 붙여 그린 회화 ‘워킹 인 신사동’
(Walking in Sinsa-dong 1) (위)과 발광다이오드(LED)
패널로 표현한 작품(아래). 오피는 “신사동 사람들이 옷을
너무 잘 입는 데 처음 놀랐고, 행인의 대부분이 여성이거나
20, 30대 젊은이라는 사실에 두 번째 놀랐다”고 말했다.